

# '빗물이용시설'로 가뭄 극복한다

### 빗물 모아 청소·세척 등 생활용수로 다시 쓸수 있어 전주시, 건물 신축·재건축시 시설 설치 홍보 나서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빗물이용시설은 무심코 하천으로 흘러보내기 쉬운 빗물을 모아서 조경과 청소, 세척, 세탁, 화장실 용수, 텃밭 가꾸기, 분수 등 생활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른 더위와 극심한 불 가뭄의 장기화로 작물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건물 신축과 증·개축, 재건축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는 또 기존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에서도 가뭄 해갈 시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빗물은 그간 자원이자기보다는 땅에 떨어지면 곧바로 대부분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야 마땅한 것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면 적은 양의 빗물도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모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시가 지난 3월 실시한 빗물이용시설 145개소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결과,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30

개소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주시 빗물이용시설의 월평균 사용량인 1,052톤을 기준으로 빗물이용의 환경적·경제적 비용 절감효과 분석에서는 연간 4,8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공적 자원인 빗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우수 유출량도 저감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및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빗물이용 활성화 운동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빗물자원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 침수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0년부터 총 6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까지 총 14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빗물이용시설의 확대와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빗물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시행, 빗물이용 다양화를 위한 초기우수여과장치 설치 확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사후 유지관리 강화, 빗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건축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적극 권장,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이 늘어나면 도심 열섬현상 저감, 지하수 충전용수 확보, 가뭄·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 가치가 실현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삼성 합병 압박' 문형표·홍완선 '실형'

### 법원, 각각 2년 6개월형... 업무상 배임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관리처분위원회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조모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

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은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후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 안전이 투자위에서 찬성됐다"며 "배임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면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뉴스

## 전주 발전 과정 '한눈에'

전주시가 지난 1966년부터 현재까지 촬영된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도시발전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주요 시각자료인 항공사진의 안전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이 가능해져 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온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시계열 정사영상'은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 필름을 스캔한 후, 영상정보와 항공삼각측량, 색상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정사영상 하나의 통합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연도별로 시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시는 디지털화된 시계열 정사영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내부 뿐만 아니라 교육 및 도시발전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청 본관로비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는 도시의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항공사진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시는 8일 전주화산체육관 회의실에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왼쪽).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인권의식 'UP'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지난 4월부터 중·고교 방문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전개

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시는 8일 전주화산체육관 회의실에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람중심, 인권중심의 행정이 도시 전반에 스며들어 인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진경민 전북 인권교육센터 사무국장이 강사로 초청됐다.

진 강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이지콜과 체육시설 관리 등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면하는 시설

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인권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인권탐방이 전주 서중학교 등 관내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업교육과 연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전개하고 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그간의 특강식의 대규모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인권교육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시는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보장·증진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교실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시민들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연중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전주드림스타트, 해충 제로화 나서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20가정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해충 ZERO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다가를 무더위와 장마로 유해해충 확산이 우려되는 20가구를 선정해, 살균·소독 등의 방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는 (주)세스코 전북동부지사와 함께 해충방제 등 각 가정환경에 맞는 전문적인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 '우병우 수사팀장' 윤갑근 등 검찰 고위간부 7명 좌천

### 법무부, 12일자로 전격 단행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됐다. 노승권(52·21기·검사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8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절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노 차장검사 전보 조치는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고등검사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조정되면서 검사장급 간부 2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풀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이들 검사장 외에도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양부남(55·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대검 형사부장으로 발령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진숙(53·22기), 박윤혜(51·22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3명을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뉴스

## 전주신중상시장 '포장마차' 운영 창업자 모집

전주신중상시장에 전통시장 야간 포장마차 거리가 조성된다.

포장마차 거리가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모델인 남부시장 청년몰·야시장과 함께 전주의 새로운 전통시장 명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신중상시장 상인회는 오는 22일까지 시장 안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할

청·장년 창업자를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신중상시장 블로그(blog.naver.com/pkcut02)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신중상시장 상인회에 직접 방문 접수(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33, 2층)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신중상시장 상인회(063-274-7535)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전내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고

행복한 교육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장착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